

스모를 관람하는 방법

우리나라에 씨름이 있다면 일본에는 스모(相撲)가 있음. 이들 두 가지 스포츠는 발전과정에도 비슷한 점이 적지 않은데, 민속경기에서 출발하여 프로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 서로 닮았음

□ 스모의 유래

- 스모의 기원을 찾아보면 고사기(古事記)와 일본서기(日本書紀)에 등장할 정도로 역사가 깊은 것을 알 수 있음
- 여기에 등장하는 스모는 격투기의 일종으로 신들이 힘을 겨루는 신화로써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
- 헤이안(平安)시대에는 종교적 색채가 가미된 제사의 일환으로 스모가 등장함
- 무사사회인 가마쿠라(鎌倉)시대를 전후해서는 무예의 일종으로 그 의미가 바뀌면서 무사들에게 장려하게 됨
- 에도(江戸)시대는 스모에 예능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대중화의 꽃을 피웠던 시기였음
- 현재의 스모는 직업 혹은 스포츠로의 성격이 강함
- * 이렇듯 스모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로 성장하고 변화해 왔는데, 현재 스모는 과거의 제사를 지내던 여러 혼적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프로스포츠로서 성장해 있으며, 변함없이 일본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스포츠 문화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음

□ 도효(土俵): 스모 경기장

- 씨름의 모래판에 해당하는 스모가 진행되는 경기장은 도효(土俵)라고 하는데 시대에 따라 그 크기가 조금씩 조정됨
- 에도(江戸)시대 도효의 직경은 13척(3m 94cm)이었으나, 천황이 직접 관람했던 덴란즈모우(天覽相撲)가 열렸던 1931년 4월 29일부터 15척(4m 55cm)으로 넓이가 조정되었음
- 당시 도효의 크기를 넓힌 이유는 스모우가 가진 묘미 중 하나인 순간승부를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였다고 함
- 1945년 11월에 열렸던 시합에는 당시 일본에 주둔했던 GHQ (General Headquarters, 연합군총사령부)의 요청에 따라 한때 도효가 16척으로 넓어지기도 했음
- 도효 지붕의 네 모서리를 장식하고 있는 각각의 색깔은 동쪽의 푸른색은 뱀과 청용신(靑龍神), 서쪽의 흰색은 가을과 백호신(白虎神), 남쪽의 붉은 색은 여름과朱雀신(朱雀神), 북쪽의 검은색은 겨울과 현무신(玄武神)을 상징함

□ 스모 경기 방법

- 실제 스모 경기를 보면 두 선수가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엄격한 격식을 갖춘 일종의 의식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음
- 먼저 시합에 앞서 모든 참가 선수들이 등장하는 도효이리(土俵入り)가 행해지는데 이때 화려한 복장으로 일사불란한 몸동작을 선보이는 선수들에게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냄
- 이 의식이 끝나면 다시 안으로 돌아갔다가 본인의 경기 순번의 2경기 전에 도효 아래에 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호명되면 도효로 올라감

- 도효 위에 올라가서 힘차게 뿌리는 소금을 기요메노시오(清めの塩)라고 하는데, 이 같은 행위는 소금이 액운을 막아준다는 의미와 더불어 선수들이 넘어져 상처가 났을 때 소독처리를 할 수 있는 부대효과도 있기 때문임
- 소금을 뿌린 후에는 옆에 놓여있는 치카라미즈(力水)를 한입 마시고 치카라가미(力紙)로 입을 닦는데, 물은 정화수로 시합 전기를 모으는 의미가 있으며 입을 닦는 종이는 몸과 마음을 맑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
- 이러한 모든 행동을 끝내면 양 발을 번갈아 높이 옆으로 쳐들면서 땅을 다지는듯한 몸짓을 하는데, 이것을 시코(四股)라고 하며 상대와 마주보고 두 손을 땅에 대고 상대를 노려보는 행동은 시키리(仕切り)라고 하는데 경기의 시작을 의미함
- 경기는 도효 밖으로 누군가가 밀려나거나 발바닥 이외의 신체가 땅에 닿는 것으로 승부가 결정됨
- 단순히 밀쳐내는 것으로만 보이는 스모에도 무려 70여 가지의 기술이 있음
- 승부가 난 후 교우지(行司, 심판)가 들고 있던 부채모양의 군바이(軍配)를 이긴 쪽을 향해 들어 승리했음을 알림
- 패한 선수는 바로 도효에서 내려가지만 이긴 선수는 잠시 남아 오른손을 좌우로 저으며 신에게 감사를 표시함
- * 이때 교우지는 군바이 위에 스폰서가 되어준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전해지는 상금을 엮어 선수에게 줌